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1년 봄 제67권 1호



함께 나누는
부활의 기쁨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변화가 시작되는 곳

130년 전 한글 성경이 전해진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막은 예배당이 되고,
노름꾼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이 만들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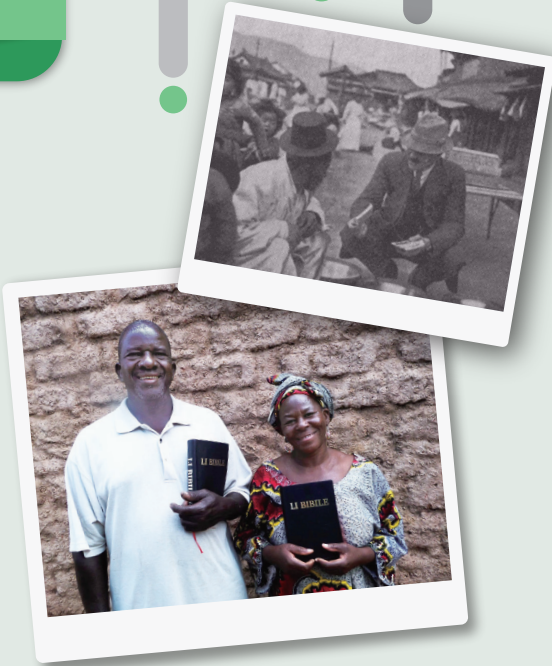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1 봄 제67권 1호

02 포토에세이

최고의 선물, 성경

04 커버스토리

함께 나누는 부활의 기쁨

08 2021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5개 성서공회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나의 삶을 바꾼 말씀

성경과 함께 변화된 삶
- 라오스 밋세나 이야기

14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유럽·중동 지역을 위한 기도

16 성경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18 다매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 성경

- <새한글성경>(감수용)을 준비하면서

20 말씀을 만나다

니고데모

21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함께하는 기도'

22 후원 이야기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1. 성서한국 디지털 자료 서비스 안내
2. '고통 가운데 위로를' 시리즈 제공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44번길 110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1년 4월 10일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우간다 시타 지역에서 성경을 받은 미리암 할머니

최고의 선물, 성경

우간다 시타(Seeta) 지역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명 남짓한 이들은 성경이 간절했지만
그 필요를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최고의 선물에 감격했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에 기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잊었던 가치들을 기억하게 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미리암 할머니

함께 나누는 부활의 기쁨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그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만남을 절제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기가 끝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과 함께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생존의 갈림길 앞에서

지난 해 세계 각국의 성서공회에서는 눈물과 고통의 사연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 빈곤과 종교적 핍박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수행해 온 성서공회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악화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길어지며 국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니제르성서공회는 일주일에 성경 한 권을 겨우 판매하였는데, 그마저도 고객이 그 성경 값을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아 그 다음 날 다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이 갖고 싶었지만 생계의 문제 앞에서 성경을 돌려주러 온 고객을 보며 성서공회 직원 모두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성서공회 사무실 모습



모잠비크성서공회 총무 발렌테 체코는 성서공회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두 개의 태풍 피해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국소 분쟁들, 이슬람의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에 코로나19는 더 큰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성서공회는 성경 보급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했지만 보급할 성경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장 어려운 때에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딤후 3:15하



▲ 기증받은 성경을 들고 있는 이보네(모잠비크)

“저는 모잠비크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이보네(Ivone)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제게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던 저는 성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손에 최고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앙골라 우암보(Huambo)에 부모님과 여덟 명의 형제와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저는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성경을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기뻐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성경을 기증해 주신 후원자들과 성서공회에 감사드립니다!”



▲ 성경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세(앙골라)

전 세계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해외 성경 후원’을 통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극한의 상황들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희망과 구원의 확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과 그 가정, 마을과 나라를 변화시킬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보낸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성경 보내기 후원 캠페인’ 진행 보고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힘입어 17개국에 113,379부의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에 스페인어 성경 18,174부, 니제르, 베냉, 세네갈, 세이셸, 차드, 카메룬, 토고에 붙어 성경 57,485부가 제작되어 기증되었습니다. 해당 성경들은 곧 각국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17개국 113,379부
성경 보급 중

니제르(7,383부), 베냉(12,423부), 세네갈(6,385부), 세이셸(2,014부), 차드(9,903부), 카메룬(9,400부), 토고(9,977부), 베네수엘라(7,273부), 에콰도르(5,876부), 코스타리카(5,025부)
성경 기증



10만 원을 현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해외 이웃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5개 성서공회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성서공회 (2021.3.2 기준)



아메리카
16개
성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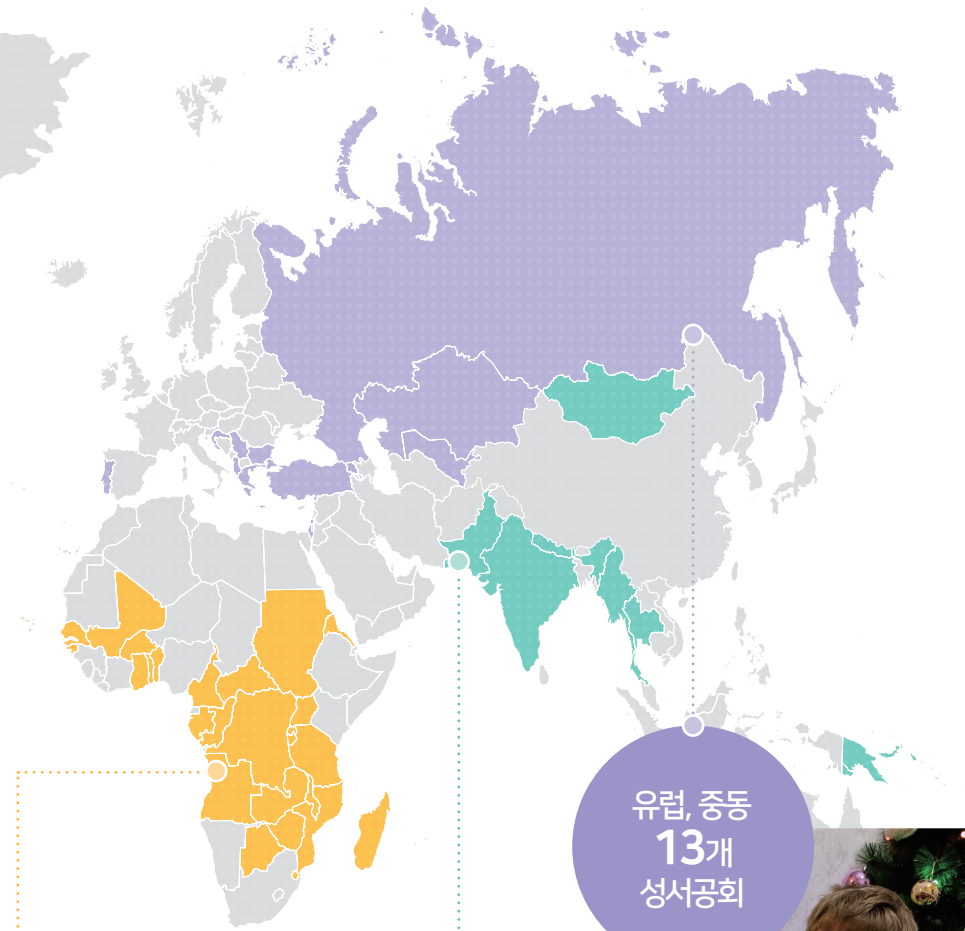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와 아루바,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28개
성서공회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남수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세네갈,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중동
13개
성서공회



아시아 태평양
8개
성서공회



남태평양,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포르투갈**

성경과 함께 변화된 삶, 라오스 밋세나 이야기



밋세나 마하포네(가명)는 성경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4년, 밋세나의 삶에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저는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매우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 불교신앙은 제게 필요한 어떠한 평안이나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암에 걸린 딸아이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저를 가까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위로였음을 확신하며, 저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다

밋세나는 다시 고향인 라오스로 돌아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따라
저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밋세나는 어린이 이야기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번역하던 중 다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지 6개월 만에, 영어로 된 어린이 성경을 라오어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에

“저는 낮에는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고 저녁이 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제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밋세나의 성경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많은 번역을 수행해갈수록 성경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또 해설 성경 번역팀에도 합류하여 번역자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위해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출석하는 지역 교회에서도 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에는 신앙에 대해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밋세나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 번역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성경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께 더 깊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밋세나의 인도자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돕다

성경 이야기 중 밋세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눅 16:19-31) 지역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과부, 버림받은 아내들, 마약에 중독된 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밋세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경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함께 찾아주는 등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밋세나는 최근 빈곤한 마을의 한 가족에게 찾아가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인이 된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가정의 아버지는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고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마 11:28-30



▲ 방문한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밋세나

“저는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준비해 둔 따뜻한 차를 잊어버릴 만큼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차가 식어버리는 일도 많았죠. 저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은 라오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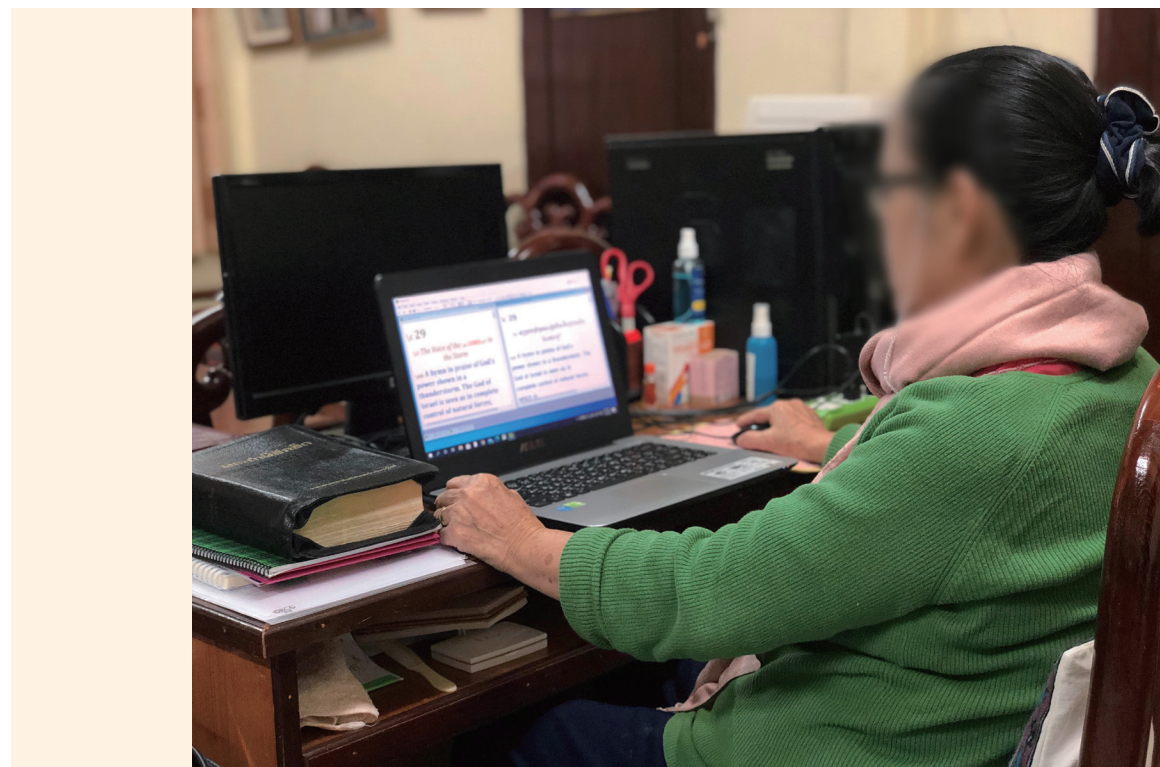
*밋세나가 번역한 라오어 해설 신약은 2021년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놀라운 성취

밋세나는 라오어 성경의 옛 번역본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히 번역된 성경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어 해설 성경의 번역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영어실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격려와 훈련, 연습을 통해 밋세나의 실력과 자신감은 자라났고 라오어 해설 신약의 번역은 일정보다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신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서 매우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 성경 번역작업을 하고 있는 밋세나

유럽·중동 지역을 위한 기도

① 슬로바키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서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국민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서공회의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언어의 성경과 필요한 형태의 성경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② 그리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서 보급이 잘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성경을 반포하고, 현재 저희 나라가 처한 심각한 경제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③ 이라크

이라크의 소수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이라크 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의 성경 반포를 위해, 또한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그리고 성서공회의 사역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④ 레바논

저희는 성경의 번역과 출판,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성경 반포, 말씀의 언약,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한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동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후원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교회와 성서공회가 협력하여 성서출판과 보급에 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평화와 괴로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케냐의 인구는 약 5천5백만 명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40%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기초적인 교육마저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시골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기초교육에 대한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은 더욱 꿈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마사이족 소녀들은 조혼과 여성 할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부족의 전통 문화 때문에 교육을 받

을 기회가 더욱 적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 센터로 구조된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생필품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케냐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지원받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

▼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



경을 받은 어린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공유하며 지역 복음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케냐성서공회는 소외되고 가난한 배경을 가진 100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센터에 12,000부의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저에게 성경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마리아(에스더 학교 학생)

“
이 성경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원하시는 분들은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사인 저희들에게도 참 큰 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어린이 구조센터 교사)

전해진 성경 앞에서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모두 들뜬 마음과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아이들과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 케냐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받은 어린이들

다매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 성경

– 〈새한글성경〉(감수용)을 준비하면서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새로운 번역 성경인 〈새한글성경〉(가칭)

현대 사회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경을 번역, 출판, 보급하는 사명을 맡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는, 젊은이들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 성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말부터 〈새한글성경〉(가칭)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우리말 어법에 맞는 글로, 최신 학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번역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성경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인쇄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매체로 반포하는 데도 적합한 번역이 되도록,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로, 간결하고 쉬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또, 스마트폰과 같이 작

은 화면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문장을 짧게 끊어서, 되도록 16어절을 넘지 않도록 번역합니다. 그동안 인쇄본 성경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많은 참고 자료(각주, 짧은 풀이, 용어 해설, 사진, 그림, 지도, 동영상 등)를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전의 성경 번역 사업이 본문의 번역에만 주력해 왔다면, 성경 번역 단계에서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고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새한글성경〉(가칭)을 번역하는 이유

새로운 번역 성경은 각 시대마다 교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새한글성경〉(가칭)을 번역하고 있는 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에는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역 성경에 익숙한 기존 성도들은 〈성

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번역 전통은 최초의 한글 완역 성경인 〈성경전서〉(1911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성경이 1938년과 1961년, 1998년에 크게 세 차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젊은이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성서공회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인 〈공동번역 성서〉(1977년)와 그 개정판(1999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과 그 개정판(2001년)을 발간하여 성경 독자들의 말씀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다매체 시대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젊은이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2) 특히 〈새한글성경〉(가칭)은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말씀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문의 어순까지 맞추어 글자 그대로 옮기면서 원문의 문법적 구조뿐 아니라 원문의 어원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원문을 새롭게 참신한 용어로 번역하여 개역개정판 성경과 함께 읽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또 〈새한글성경〉(가칭)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읽기에 적합한 성경이 되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110여 년 동안 우리말과 우리글의 체계와 표현이 계

속 바뀌었습니다. 아래아(·)가 있고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세로쓰기 성경은 우리 선조들에게는 믿음의 기반이 되었으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매체에 적합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4) 〈새한글성경〉(가칭)은 가장 최신의 원문 비평편집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합니다. 성서 사본학과 고고학과 언어학과 주석학 등 성서학 여러 분야의 발달로 번역 대본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원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하던 것들 중 후대에 필사한 내용이 있음을 찾아내기도 하고(“절 없음”으로 표기되는 부분), 해석이 불가능했던 구절을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각 시대의 최신 비평편집본인데, 이를 번역에 반영한 새로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한글성경〉(가칭) 번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7일부터 ‘성경번역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1년 동안 번역 원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4일부터 각 교단 성서학자들 36명이 함께 성경 본문을 번역하고 검토하고, 국어학자 3명이 이를 읽으며 본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젊은이들과도 잘 ‘소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니고데모



그리스어: nikodemos

뜻: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언급되는데, 경건한 유대 사람이자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보도하지는 않는다.

니고데모는 밤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요 3장). 몇몇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밤중의 만남은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이 처해 있던 정신적 암흑 상태를 비유한 것이라 한다. 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람들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맞서서 예수님을 보호했다(요 7:51).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장면에 등장한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메시아의 시신을 동산에 있는 한 무덤 굴에 안장했다.

신중한 니고데모가 과연 실제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까? 4세기에 생겨난 '빌라도 행전'(또는 '빌라도 문서', '니고데모 복음서')이라는 저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고치는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빌라도 앞에 고발된다. 니고데모는 모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다. "예수님은 유익하고 위대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한 것이며 앞으로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



▲ 한밤중 촛불 아래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말씀과 새로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Deutsche Bibelgesellschaft, ed.,
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295-296 중에서(편역: 김창락).

Prayer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함께하는 기도'



미얀마성서공회를 위한 기도

▲ 미얀마 반(反)쿠데타 시위 모습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대와 군사 정부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사무실은 분쟁 지역인 양곤(Yangon)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봉쇄 조치로 인해 미얀마성서공회의 활동이 몇 달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 위기로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미얀마성서공회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대의 빛이 되는 말씀

여수성동교회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경 전달(왼쪽부터 본 교회 권의현 사장,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

〈불어 성경〉 5,318부 기증

2021년 2월 19일, 여수성동교회(김현우 목사)의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에 〈불어 성경〉 5,318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김현우牧사는 “여수성동교회는 한반도 맨 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작은 소망의 손길이 그곳에 빛이 되어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다음 세대들에게 빛으로 비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쪽 내륙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라로 부르키나파소의 공

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대다수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데 문맹률은 58.8%에 이릅니다 (2018년 기준). 또한 전체 인구의 43.58%에 이르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불어 성경〉 5,318부는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가 진행하는 성경 기반 문자교실과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성경을 통해 글을 배워 말씀을 읽는 기쁨을 느끼고,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길

안양제일교회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경이 실린 컨테이너 앞 안양제일교회 박민철 목사, 최원준 목사, 원덕길 장로

〈한국어-러시아어 대조 성경〉 2,912부 기증

2021년 2월 23일, 안양제일교회(최원준 목사)의 후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에 〈한국어-러시아어 대조 신약〉 2,912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최원준牧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통하여 이 성경을 받고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

시길 원합니다.”라며 축원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한국어-러시아어 대조 신약〉 2,912부는 나날이 이슬람의 종교적 박해가 심해지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인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고려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1. 성서한국 디지털 자료 서비스 안내

성서한국은 195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대한성서공회의 소식을 전하고 후원회원님들께 성경 보급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면 발행의 형태로 우편 발송을 이어왔으나 후원회 원님들의 편의와 후원금 사용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소식지 수신 방법을 변경하실 분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이메일 bible@bskorea.or.kr

2. '고통 가운데 위로를' 시리즈 제공

본 공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속에 있는 후원회원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온라인 환경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들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보세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말씀 카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농협은행 355-0025-0990-53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수협은행 033-01-085327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4)

아프리카 여러 지역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전쟁, 빈곤, 종교적 핍박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눅 10:36)

고난 중에 있는 아프리카의 이웃들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복음전파를 도울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